

전남 서부권

완도~ 제주 뱃길 1시간 40분대 주파

내달 쾌속카페리 '블루나래호' 취항

관광객 편의시설 대폭 개선... 1일 2회 왕복

완도~제주 뱃길이 1시간대로 단축돼 완도에서 제주를 왕래하는 관광객들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완도~제주간 선사인(주)한일고속이 다음달 23일 이 항로에 3000t급 쾌속카페리 '한일 블루나'

래호'를 띄우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블루나래호'는 속력 34노트로 여객 572명, 차량 84대를 싣고 1일 2회 왕복 운항한다. 완도군과 (주)한일고속은 지난 9월

투자협약을 체결, 기존 '한일 카페리 2호'를 대신하는 '한일 블루나래호'를 투입키로 했다. 앞으로 이 쾌속선이 취항하면 3시간10분 정도 소요됐던 시간을 1시간 30분가량 단축시켜 1시간 40분대로 주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까지의 최단거리에



〈한일 블루나래호〉

위치한 완도항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시간적·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남도와 완도군, 선사에서 '한일 블루나래호'의 안전한 취항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며 "접안시설은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내에서는 목포와 완도, 장흥, 고흥 등지에서 제주도 여객선이 경쟁적으로 운항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도교육청 자판기 운영권 장애인 우선 부여

목포 권역 의원 발의 의회 조례안 통과

전남도교육청내 매점 자판기 운영권이 장애인에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263회 임시회에서 권역 의원(목포2) 대표발의로 '전남도교육청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교육청 공공시설안에 매점과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들이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장애인 편의를 차용하거나 불법·위탁하는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체결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권역 의원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복지 단체, 국가공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층의 생업지원과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 생업지원제도'가 시행됐으나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을 제외한 목포시 소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평생학습대회 내일 개막

'제5회 목포 평생학습대회'가 3일 부주산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평생학습·평생행복 교육도시 목포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평생학습 동아리와 다문화가족 11개 팀이 참가해 ▲

동화 구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색소폰 메틀리(목포대평생교육원) 가야금 병창(목포 ▲공공도서관)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어 열리는 '주민사랑(주민자

치) 경연대회'에서는 관내 22개 동 주민센터가 참가해 풍물·국악·댄스 등 3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룬다. 특히 주민사랑 경연대회는 분야별 발표내용과 작품성, 창작성, 관람객 호응,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장려상 등 동아리 6개 팀과 주민사랑방 11개 팀을 선정 시상하게 된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기자선생님

"기자선생님, 이러한 보도를 왜 게재하십니까." 기자는 지난 26일 '폭포학교를, 문제학생 떠넘기기' 기사가 보도된 후 한 고교생의 전화를 받았다. 어리둥절해 이유를 물어본즉 이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자신도 모르게 폭력에 가담해 학교로부터 수없이

선도한다던 바른길을 갈 수 있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학부형들의 요구와 학교분위기 등의 이유로 이들을 등 떠밀어내기 급급하다면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교육 관계자들은 생각해봐야 한다. 성범죄와 마약, 살인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

체벌 보다는 진정한 교육 필요할때

이 전화를 권고받아 3차례나 전화를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때 따뜻하고 학생다운 대우를 해준 한 여 교사의 인도로 지금은 모범생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있다는 이 학생은 "처음 처벌식 학교에서 체벌만 하려하지 않고 진정한 손길이 있었다면 당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주위의 무관심 때문에 반항적인 폭력이 계속됐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냈다.



이 상 선

〈서부취재본부 기자〉

청 소년들은 호기심과 분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반면에 감성이 풍부해 진솔한 이해와 마음

의 범죄인들은 과거 학교생활에서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이들의 전학문제를 놓고 서로가 '핑퐁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기관의 태도는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교육기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진정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또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추진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청소년 선도 관계자들의 의견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slee@

슬로시티 증도 경관 조성 면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신안군은 아름답고 쾌적한 '슬로시티' 증도의 경관 조성을 위해 전국 읍·면·동 최초로 면 단위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군은 9000여만원을 들여 깨끗한 친환경의 섬으로 주목받고 있

는 증도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형별 15가지 경관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증도의 경관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을 수립, 아름답고 매력적인 농어촌 경관 조성을 위해서다. 기본 계획은 염전경관, 수생경관, 갯벌생태경관, 사구 복원, 다크스카이 경관 등이 포함됐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전 북

10·26 재선 당선 이환주 남원시장·황숙주 순창군수 취임

이 시장 수요자 중심 현장 행정 펼칠 것 황 군수 분열 극복 하나된 순창 만들 것

10·26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환주 신임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가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군정업무에 들어갔다. <이환주 남원시장 '수요자 중심행정' = 재선거에서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 이환주 남원시장은 27일 춘향 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낯은 자새로 시민을 섬기며 낙후된 남원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취임식은 황 군수의 취임선서, 취임사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 축하메세지 낭독, 꽃다발 증정 순으로 이어졌다. 황 군수는 취임사를 통해 "오늘은 순창의 분열을 극복하는 화합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이며, 또한 순창의 침체된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새로운 변명과 희망의 출발점에서 있다"며 "비록 지금부터 고고하자는 길이지만 난항지라도 순창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이환주 시장〉 〈황숙주 군수〉

군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또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꿈꾸며 화합하는 정치를 위해 군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화합하고 하나된 순창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화합의 의미를 특히 강조했다.

한편 새로 선출된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임기는 2014년 6월까지로 앞으로 2년 8개월동안 시장직과 군수직을 수행한다. /전북취재본부=백선·이동희기자



정읍 민속 소싸움 대회 '대박'

노래자랑 연계 10만명 몰려 흥병일씨 '구룡산' 백두 1위

지난 27~31일 정읍 내장산 문화관광장에서 열린 '제15회 정읍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가 소싸움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전국대회 11개 대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 152마리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흥병일씨의 '구룡산'이 백두급에서 1등을 차지했고, 한강급에서는 배영화씨의 '강양', 태백급에서는 이

명진씨의 '셋별'이 영예의 1등을 차지했다. 특히 정읍사 문화제와 전국 노래자랑과 연계해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연일 만원을 이뤘던 정읍 소싸움의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개 한국 민속소싸움지회 우수들이 참가해 태백급(백두급, 한강급, 태백급)에 총 152 규모인 152마리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흥병일씨의 '구룡산'이 백두급에서 1등을 차지했고, 한강급에서는 배영화씨의 '강양', 태백급에서는 이

명진씨의 '셋별'이 영예의 1등을 차지했다. 특히 정읍사 문화제와 전국 노래자랑과 연계해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연일 만원을 이뤘던 정읍 소싸움의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개 한국 민속소싸움지회 우수들이 참가해 태백급(백두급, 한강급, 태백급)에 총 152 규모인 152마리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흥병일씨의 '구룡산'이 백두급에서 1등을 차지했고, 한강급에서는 배영화씨의 '강양', 태백급에서는 이

전북 전통술, 전국 대표 술 명성 입증

운봉 참동이허브와인술·전주 이강주 품평회 대상

도내 전통술이 지난 27~30일 서울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 8개 부문 가운데 3개 부문을 석권했다. '생막걸리 부문'에서는 운봉주조의 '참동이허브와인술'이 대상을 받았다. '과실주'와 '리큐르 부문'에서는 무주 칠연양조의 '붉은진주'와 전주 이강주류의 전주이강주가 대상을 수상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대평주가의 '진심홍삼 인삼주'는 일반 증류부문에 최우수상을 안았다. (유)참본의 '주몽복분자'는 기타주류 부문에서 우수상을, 고창 서해안 북분자주의 '헵살 막걸리'는 살균막걸리부문에서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북도 17개 제품을 포함해 전국 116개 제품이 경합을 벌였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지리산고랭지 생산 국화 8에 첫 수출

남원시 지리산 고랭지에서 생산된 국화가 일본에 첫 수출됐다. 1일 남원시에 따르면 운봉읍 덕산리 지리산 화훼작목반 이우선 농장에 출하된 국화는 이날 상도무역을 통해 3만 그루를 일본에 수출한 데 이어 이날 말까지 15만 그루(6000여만 원 상당)를 보낼 예정이다. 남원시 원예특작 감영선 담당은 "1992년 백합 수출을 기반으로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며 "앞으로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명품 화훼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경쟁 출품작 공모

(재)전주 국제영화제는 내년 1월 27일까지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장편·중편·단편) 경쟁부문 출품작을 공모한다. '한국영화'의 경우 상영시간 40분 이상 장편 또는 중편영화, '한국 단편영화'의 경우 상영시간 40분미만의 작품이면 출품 가능하다. 한국 단편영화 작품은 ▲극영화·다큐멘터리 ▲실현영화 ▲애니메이션 등 3개 섹션 전문 심사위원의 예심을 거쳐, 영화제 기간 동안 본심을 통해 한국단편 경쟁대상과 차별별 우수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02-2285-0562)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맞춤형 비료공급 평가서 대상 수상

군산시가 농립수산물부품 주최, 농협중앙회 주관의 '전국 맞춤형 비료 공급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 농식품부 장관표창과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맞춤형비료 사용비율(관행비료 대비) ▲전년 대비 화학비료 절감비율 ▲비료 사용교육 및 홍보실적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 등을 대상으로 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30억~44억원씩을 투입해 성분함량을 맞춘 비료를 7400여 농가에 전달 무상공급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김제노인복지타운 위탁업체에 예림의료재단

김제시 노인복지타운(김제 노인종합복지관, 김제 노인전문요양원)의 새로운 위탁체로 의료법인 예림 의료재단이 결정됐다. 예림 의료재단은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지역사회 복지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운영하게 된다. 예림 의료재단은 김제에서 김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예림 의료재단 관계자는 "의료와 복지를 통합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의 제 2의 도약을 이루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기기자 hnews@

대교농높이 초등 축구 광주승정초 결승행

광주 승정 서초등학교와 경남 김해 외동초등학교가 '2011 대교농높이 전국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축구대회' 결승에 진출해 오는 6일 서울 상암월드컵 보조구장에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 이번 대회 예선부터 4강경기까지 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정읍에서 3주간 치러졌다. 정읍시 관계자는 "선수단과 봉사단체와의 자매결연, 자원봉사자들의 관광안내와 음료 봉사 등이 성공개최의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